해외의약뉴스

갑상선기능항진증-유방암 연관성

개요

덴마크연구진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은 반면, 이와는 반대질환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여성들은 유방암 위험이 낮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설계에 있어서 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내분비기관은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유방암은 분명 호르몬으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유방암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Jorgensen 박사 연구팀은 갑상선기능항진증(hyperthyroidism,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과다 분비되어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상태) 여성들은 유방암 위험이 더 높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2월 11일, 유럽 내분비학 저널(the European Journal of Endocrinology)에 발표했다.

덴마크 연구팀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여성은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여성에 비해 유방암 위험이 11% 높은 반면, 갑상선기능저하증(hypothyroidism, 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분비되는 상태) 여성은 정상인 여성에 비해 유방암 위험이 6%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결과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여성 약 80,000명과 갑상선기능저하증 여성 약 60,000명을 대상으로 1978년에서 2013년까지 36년에 걸쳐 진행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연구에 참여하기 전, cancer-free 상태였으며, 유방암 발병은 대략 5~7년동안 추적되었다.

연구저자 Jorgensen 박사는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사실, 그는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유방암 위험의 이러한 유사한 연관관계는 이전 연구 4건 가운데 3개의 꼴로 발표된 바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유방암 위험과 연관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둘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연관성이 가능한 설명들이 많다고 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여성들은 병원을 방문하여 유방조영술(mammpgraphy)을 포함한 다양한 검진을 받는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여성들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취약한데, 이러한 원인을 갑상선 자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갑상선 호르몬이 유방암 발생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갑상선기능항진

COPYRIGHT (C) 약학정보원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ALL RIGHTS RESERVED.

증 치료제가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핵심은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갑상선이 신진대사 제어의 중심에 있다고 언급하며,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고, 매년 10만명당 약 51명이 진단받는다고 말했다. Jorgensen박사는 갑상선 암 검진(thyroid cancer screening)이 점점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가지만 새로운 연구결과가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증가된 암 검진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the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 따르면, 갑상선은 신체의 대사(metabolism), 성장 및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호르몬 분비선으로 호르몬을 혈액 속으로 일정하게 방출해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코트니 비토 박사(미국 시티 오브 호프 종합암센터 종양외과 전문의)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논평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매우 동종집단(homogenous group)의 여성들이다.”고 덴마크 참가자들에 대해 말했다. “많은 민족변화와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미국에는 이러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다른 나라에 일반화할 수 없다.”

비토 박사는 연구설계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며, 이 조사결과는 특히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유방암 가족력(family history)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내분비기관(endocrine system)은 현재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유방암은 분명히 호르몬으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원문정보 ●

https://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57203.html

COPYRIGHT (C) 약학정보원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ALL RIGHTS RESERVED.